

독바위문화회장 김정택

# 郷土性 담보한 작품 발굴의 산실

독바위문화회는 2004년7월31일 오후1시 내촌면 마명리 서운동산에서 창립 및 독바위 문학 출판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된 독바위문화회(회장 김정택)는 포천문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마흥문예대학(현재 포천문예대학) 수강생 중에서 내촌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문학동호인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순수 문학모임이다.

그동안 독바위문화회는 2권의 책을 발간해 내촌면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문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2년에 1회씩 개최되는 민민의 날 행사에 백일장대회를 마련해 글을 좋아하고 작가를 발굴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백일장 개최로 내촌면민의 위상이 높아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독바위문화회는 내촌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독바위문화회 김정택(사진) 회장은 "문학은 자기를 시험할 수 있는 장"이라며 "내촌면에서 글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바위'는 내촌면에 위치한 큰 바위로 내촌면이라는 지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독바위문화회가 내촌면을 상징하는 향토성을 담보한 작품을 만들어나기 위해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김 회장은 독바위문화회의 현안사항으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문제를 들고 있다. 1년에 1회 이상 작품을 발간할 수 있는 예산만 마련된다면 더욱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김 회장은 "현대에는 유형의 재화보다는 무형의 지식 정보와 문화자원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쌓는 일과 전문지식을 갖춘 신진작가 발굴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월간 조선문학에 시인으로 등단한 김 회장은 "대한민국 문예대전에 참가해 2회 표창을 받았지만 등단을 하지 않으면 포천에서 인정받지 못해 최근 등단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문예대전에는 수필로 참가했지만 등단은 시인으로 등단했다.

김 회장은 포천시가 독바위문화회 발전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작

품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아쉽다고 강조한다.

또 포천예총이 광릉수목원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례행사를 개최하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내촌면과도 가까운 광릉수목원은 포천시의 상징으로 종합축제를 개발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뜻은 있었지만 길이 없었던 내게 어느 날 갑자기 촉촉한 단비가 되어 희망이라는 봉오리를 맺게 해 주었던 독바위 문화. 지금껏 내 앞의 삶이 하도 버거워 오래도록 접어 두었던 문학을 향한 꿈을 이제 조금씩 펼쳐 보일 수 있음에 적잖은 희열을 느낀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야 행복하다.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은 목청껏 노래를 불어야 행복하다. 글을 사랑하는 사람은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이 행복하며, 또한 그 속에서 자신만의 자유를 얻는다.(중략) 말은 해야 되고, 보석은 보여줘야 보석의 가치를 발하듯, 글 또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져 필자의 정서를 이해하고, 글의 내면의 세계를 논할 수 있어야 비로소 참다운 글로서의 역할을 더해 가는 게 아닐까?"

김 회장은 "내촌면민의 날 행사에 백일장대회를 개최해 우수작품을 선별하고 책으로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독바위문화회 창립 초기에 내촌면 지역 유지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김정택 독바위문화회 회장

다음 내용은 독바위문화 제2호 '책을 펴내면서'로 독바위문화회의 성격과 앞으로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韓國의 선비정신 · 60

### 명나라 사신 주지번을 글 솜씨로 감동시킨 차천로

차천로(車天路 1556~1615)의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자는 복원, 호는 오산(五山) · 난우(蘭?) · 골실 또는 정묘거사(淸妙居士)라 한다.

서경덕의 문인이다. 선조 10년(1577)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583년 문과중시에 을과로 급제했다. 봉상시 첨정에 그쳤으나 문장이 호한하고 시 또한 웅건하다. 선조 말년에 우리나라에 온 사신 주지번은 중국 강남의 재사로서 이르는 곳마다 그의 시문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이름이 높았다. 선조 말년에 우리나라에 온 사신 주지번은 중국 강남의 재사로서 이르는 곳마다 그의 시문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이름이 높았다. 선조 말년에 우리나라에 온 사신 주지번은 중국 강남의 재사로서 이르는 곳마다 그의 시문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이름이 높았다.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미가 하나로 이어지기 어렵다. 아무래도 한 사람이 전담하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혼자 맡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은 차천로밖에 없다."

월사의 주장을 듣고 차천로가 말했다. "이 일을 해내려면 술 한 동이, 큰 병풍하나, 한석봉 같은 글씨 솜씨가 아니면 나는 붓을 들지 않겠다."

월사는 즉석에서 모든 것을 들이주겠다고 쾌히 승낙했다. 대청 마루엔 큰 병풍이 둘러쳐졌고 차천로는 수십 잔의 술을 마신 뒤 그 병풍 안으로 들어가고, 한석봉은 병풍 밖에서 화선지 열장을 펴고 붓에 먹을 듬뿍 적셔 서 대기하고 있었다. 병풍 안에 있는 차천로는 쇠로 된 문진(文鎭)으로 계속해서 책상을 치면서 시를 구상하고 있었다. 조금 후 에 병풍 안에서 차천로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석봉은 기막힌 나의 시구를 따로 지은 시를 모른다면 그의

한석봉은 정신을 차리고 안에서 부르는 대로 받아 써내려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안에서 들리는 말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대청 마루는 흥겹게 울리기 시작했다. 점차로 자기의 시흥에 취한 차천로의 정신이 미친 사람처럼 흥에 겨워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다. 나중에 속도가 빨라져서 한석봉 같은 속필로도 미처 따라 쓰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하기를 밤중까지 하고서야 오면서 백구의 장편시가 완성되었다. 지금까지 시흥에 취하고 술에 취하여 과도 처럼 비탈처럼 춤추며 차천로는 마지막 시구를 불러 주고는 술에 취해 병풍 안에 쓰러졌다.

새벽녘이 울기 전에 병풍은 주지번에게 전달되었다. 촛불을 밝히고 읽어보던 주지번은 손에 들린 부채가 부서지는 정도 모르고 흥겹게 치면서 장단을 맞추고 낭랑하게 읊조리는 그의 소리는 문밖까지 들려나왔다. 아침에 접반사를 만나자 주지번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그 후 임진왜란때 이여송(李如松)이 내원(來援)하여 평양성을 탈환하는등 큰 공을 세우고 돌아갈 때 송별시(送別詩) 백수를 구하여 읊어 선조는 이영구(李廷龜)와 송의하여 차천로에게 짓게 하였다. 이번에도 칠언시(七言詩) 백수를 하루저녁에 지었다. 오산 차천로(五山 車天路)는 천재시인(天才詩人)이요 천하문장가(天下文章家)이었다.



## 미국 뮤지컬 코미디의 아버지 조지 M. 코한(George M. Cohan)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들어서면 극장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스퀘어 안내소 근처에 위풍당당하게 동상이 하나 서 있다. 미국 뮤지컬 코미디의 아버지 혹은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조지 M. 코한(George M. Cohan, 1878~1942)의 동상이다.

코한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함께 보드빌에서 활동하면서 뮤지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경험했다. 가족 모두가 순회공연으로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다 보니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독학으로 모든 것을 배워야 했다. '네 명의 코한(The Four Cohan)'이란 이름은 당시 꽤 유명했지만 브로드웨이에 정착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생계를 위해 부모, 누이와 함께 보드빌 순회공연을 다니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코한은 점차 연기뿐만 아니라 작곡과 작사 그리고 대본까지 쓰기 시작했다. 보드빌에서 공연한 짧은 희극들을 길게 확장하면서 노래와 춤을 엮기 시작했다. 지방순회공연으로 일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코한은 자신의 작품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공연하면서 그의 가족들과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꿈이었다.

1904년, 마침내 <리틀 조니 존스(Little Johnny Jones)>가 발표되면서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 작

품은 한편으로 미국 뮤지컬 코미디의 기초를 마련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극중에 나오는 '양키 두들 보이(Yankee Doodle Boy)'와 '브로드웨이에 안부를 전하다(Give My Regards to Broadway)'는 현재까지도 애창되고 있는 곡이다. 경쾌한 노래와 춤에 일상적인 언어로 만들어진 대사와 가사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오페라와 구분되는 좀 더 대중적인 음악과 가사는 다분히 현대적인 뮤지컬 코미디에 근접해 있는데 공연 중에 미국 국가가 자주 등장할 정도로 다분히 미국적인 정서의 작품이기도 했다. 일부 평론가들로부터 불과 4가지 음으로만 만들어 졌다고 혹평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 음악적인 것과 연극적인 것의 구분이 모호해서 진정한 뮤지컬 코미디로 평가되기에는 부족한 작품이다.

비록 보드빌이나 레퍼의 작품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추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작품을 북 뮤지컬(Book Musical)의 시초로 분류하기도 한다. 북 뮤지컬이란 일반적으로 현대적인 정통 뮤지컬을 말하는데 대본의 극적 구성이 노래나 춤의 요소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한 코미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은 진지한 주제도 다룬다.

<리틀 조니 존스(Little Johnny Jones)>의 출거리는 미국의 경마 기사인 조니 존스가 영국으로 가는데 부터 시작한다. 조니 존스는 영국의 데비(경마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우승을 못하 자 본국으로부터 중간에 승부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다.

그렇지만 곧 오해를 벗고 먼저 뉴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브로드웨이에 안부를 전해달라는 노래를 부른다. 대본의 줄거리와 음악 그리고 오페라와 버라이어티 쇼 사이의 갭을 잇는 작품으로 보기에 다소 부족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코한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두 번 제작되었는데 그중 1942년에 만들어진 <양키 두들 댄디(Yankee Doodle Dandy)>가 코한의 일대기를 재미있게 엮은 명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발매되고 있는데 빠른 템포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주인공의 명연기와 함께 당시 보드빌 공연의 모습들이 코한의 연대기를 따라 많은 부분 재현되어 있어 흥미롭다.

코한의 작품들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영국이나 다른 유럽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또한 코

한의 사후에는 그의 작품들이 다시 공연되어진 적이 없다.

초창기 뮤지컬 코미디들이 그렇듯이 허술한 대본의 구성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단지 서너 곡 정도는 기억될 뿐이다. 미국 군가를 비롯해 다소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인 작품을 만들어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던 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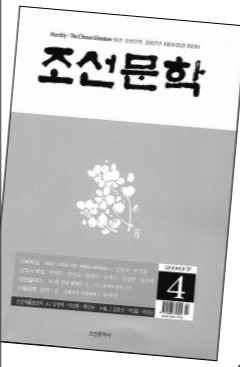
비록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뮤지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에 유일하게 그의 동상만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오클라호마(Oklahoma)>, <왕과 나(The King and I)>,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등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나, 제롬 킨(Jerome Kern, 1885~1945), '화이트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라는 캐롤송으로 유명한 어빙 벌린(Irving Berlin, 1888~1989)처럼, 범세계적인 뮤지컬 작곡가로 기억되지는 못하고 있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 "향기나는 시를 위해 노력"

김정택 독바위문화회 회장 시인으로 등단



포천경찰서 주간생활실장으로 근무중인 김정택(50) 실장이 월간 조선문학 2007년4월호에 신작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등단했다.

"아무 생각 없이 산길을 걷는 나날 숲이 아닌 작은 나뭇잎을 보는 눈을 주고 이를 없는 풀 한 포기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 J시인님, K시인님, H수필가님께 우선 글로써 감사의 전합니다. 부족하나마 대할수록 향기나는 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김정택 시인이 밝힌 신작품 당선사 수상소감이다. 김 시인은 경기 용인 출신으로 현재 포천문인협회 회원, 독바위문화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다.

허영자·박진환 심사위원은 심사평을 통해 "시적 대상이 외양을 갖춘 사물이나 존재에서 화선지 열장을 펴고 붓에 먹을 듬뿍 적셔 서 대기하고 있었다. 병풍 안에 있는 차천로는 쇠로 된 문진(文鎭)으로 계속해서 책상을 치면서 시를 구상하고 있었다. 조금 후 에 병풍 안에서 차천로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석봉은 기막힌 나의 시구를 따로 지은 시를 모른다면 그의

## "땅 끝에서면 바다가 보인다"

극단 한네

극단 한네(대표 한대관)의 '땅 끝에서면 바다가 보인다'(김태수 작, 이희용 연출)가 3월25일 대진대학교 소극장에서 1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에 올려졌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 전문연극인들의 최대 잔치이며 경기연극의 최고를 겨누는 경기연극축제 한마당인 제25회 전국연극계 경기도대회에 출품작이다.

이날 공연을 감상한 관객들은 "고초스러운 현실과 부합되는 대목에서는 함께 울고 웃고 하는 동안 현실에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대안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을 연출한 이희용 포천연극협회 회장은 "외롭고 고독스러워도 좌절하지 않고 치열한 삶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고 뜻뜻한 인간미를 만들어 가는 힘없고 백 없는 서민들의 작은 꿈을 배우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해학과 익살을 가득 담아 무대 위에 선보인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번대회는 복진오(연출가, 한성디지털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최승림(극작가), 윤우영(연출가,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이번대회 시상은 단체상과 개인상,특별상 등으로 나눠 시상하게 되며 단체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개인상에는 연출상, 희곡상, 무대예술상, 최우수연기상, 우수연기상, 신인연기상, 특별상은 단체상과 개인상 등을 시상할 계획이며 폐막식 및 시상식은 4월2일 오후8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누리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94)

### 별 하나 콩콩

내 고향 '콩콩 노래'는 '우리의 소리'로 보전(保傳)할 만큼 아름답고 재미있어 많이 불려졌다.

'별 하나 콩콩 나 하나 콩콩 별 둘 콩콩 별 셋 콩콩 별 넷 콩콩 별 다섯 콩콩 별 하나 따서 망태에 담아 넣고 별 하나 따서 망태에 담아 넣어 별 망태 동문에 걸어 놓고 별 망태 서문에 걸어 놓고 별 망태 남문에 걸어 놓고 별 망태 북문에 걸어 놓고'

함머기가 선창을 하면 손자는 후창을 하는 형식으로 부르다가 익숙해진 다음에는 같은 내용을

이어 부르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이어 부르는 형식이다. 하나, 둘, 셋, 넷... 숫자 세기를 익히는데 매우 효과적인 동요이며 동서남북을 따로 지도하지 않아도 되는 동요로 많은 가정에서 여름밤에 불렀다.

앞 냇가 자갈밭에 돛자리를 깔고 하늘을 향해 누우면 여름 밤하늘의 남·북으로 흐르는 은하수는 북녘의 북두칠성 바가지에 담겨 내 가슴에 시원하게 금빛 물 되어 쏟아진다.

은 종일 달구어진 냇가 자갈밭을 등 떠듯이 데워주고 간히 부는 실개천 바람은 온 몸

을 시원하게 적신다. 내 고향 포천의 여름밤은 이렇게 아름다웠다. 멀리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가 멀리 가면 초저녁 잠이 들고 할머니는 동요 부르기 노래를 멈추고 손자를 등에 업고 집으로 향한다.

방앗간 그림자 드리운 '방아다리' 숲 투영을 담은 마을의 '솔다리, 섬이 비어' '곰실 다리' 닭머리 모양의 버드나무 늘어선 '계 다리' '3.1만세를 불렀다'는 '만세 다리' 냇가는 우리 고향 사람들 삶의 흔적이었으며 여름밤의 하늘을 보고 누워 은하수를 마시는 피서의 공간이었다.

'별 하나 콩콩...' 동요를 비롯하여 많은 노래들이 우리 고향 어린이들의 여름 밤 초 저녁을 어린이들을 꿈나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였다.

'별 하나 콩콩...' 외에도 '아침 바람 찬 바람에...'란 동요가 있었다. '아침바람 찬 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엽서 한 장 써 주세요. 한 장 말고 두 장이요...(생략)...꾸리 꾸리 꾸리... 가 위 바위 보!'라는 동요는 주로 형제 자매들이 마주 앉아 눈을 맞추고 바람 부는 흥내, 우는 흥내, 편지 쓰기, 실 감기...등의 손짓을 하며 부르는데 주로 실내에서 부른다. (지금도 부르는 집이 있음)

내 고향의 동요나 민요는 철원 지방과 맥을 함께 한다는 설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래 동요', '전래 동화'를 채록 연구하는 학자가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 초대 漢詩

## 祝靑崗回婚 (축청단회혼)



양재창 (포천향교 전교)

陽春佳節逆回婚(양춘佳节이회혼) 獻壽弧筵禮節元(헌수호연예절원) 幸翁께서는 양춘佳절에 회혼을 맞이하여 큰잔치 열고 헌수례를 받으시니 이는 예절의 으뜸입니다.

度量非凡經世赫(도량비범경세혁) 知性出衆德行敦(지성출중덕행돈) 도량이 넓어서야 체체가 빛났으며 식견이 넓어서 덕행이 도타르옵니다.

瑤琴堂上鴛鴦像(요금당상원앙상) 賢履樓前孝鳥門(현윤서전효조문) 마루 위에 앉으신 청강내외분은 마치 한 쌍의 원앙이시며 어진 자녀들이 드나드는 대문은 효조문이 분명합니다.

積善家庭真有慶(적선가정진유경) 趣興滿坐子孫繁(취흥만좌자손繁) 옛부터 적선하는 집안에는 경사가 이어진다고 했는데 연회에는 취흥이 가득 차고 돌보입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